



보령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운영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처리
최용식 의원 5분 발언 ...
- 특색있는 원산도 개발대책 방안 제안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제234회 임시회를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정훈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박상목 전 한양해전전략사업단장, 한봉진 전 성주연장, 신기철 전 세무과장, 박병혁 세무사를 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안건 중에서 의원발의의 2건을 포함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5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보령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됐다.

의원발의의 조례안 중 최용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와 관련된 각종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함으로써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보령시만의 고유한 유·무형의 민간기록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발의됐다.

권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의 실과 가까워진 동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용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보령 해저터널의 개통을 앞두고 서해안 관광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자연을 활용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산도만의 장점을 살린 특색있고 차별화된 먹거리, 놀거리, 숙박, 체험, 주차장 다성기차 분야의 사업을 제안했다.

박금순 의장은 "의회에서는 시민들 곁에서 도움이 필요한 요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어려움들 함께 헤쳐 나가며,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담아 제도를 정비하고 작은 것부터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35회 임시회는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운영될 계획이다.

